

전북도, 고속도로 응급환자 살리기 나섰다

도로공사와, 유희부지 활용 이송체계 구축 확대 협약 12개소 헬기 이·착륙장 닥터헬기 인계지점 신규 지정

전북도가 고속도로 내 중증응급환자 살리기에 본격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 7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고속도로 유희부지를 활용한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호경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을 비롯해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고속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속도로 내 12개소의 헬기 이·착륙장을 응급의료전용 헬기 인계점으로 신규 지정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발생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에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이송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닥터헬기 인계지점은 110곳으로 늘게 됐다.

송하진 전북 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닥터헬기의 활용능력이 확대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가 구축돼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전라북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하진(가운데 왼쪽) 전북도지사와 이호경(가운데 오른쪽)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이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한편 2016년 6월 운항을 개시한 전북도 닥터헬기는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5분 이내에 전문의료진이 탑승 후 출동, 골든타



전동평(왼쪽) 영암군수는 지난 7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군의 문화관광·스포츠 사업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 민속씨름 역사공원·마한촌 건립 건의

전동평 군수, 문체부장관 만나...문화관광·스포츠 발전 사업 건의

전동평 영암군수가 지난 7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나 영암군의 문화관광·스포츠사업 현안을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민속씨름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마한문화공원 '마한촌' 건립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속씨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씨름 세계화의 기반을 구축해 영암군만의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 매력적인 관광명소이자 씨름 수련의 메카를 조성하는 체계적인 씨름 교육의 장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씨름경기장, 역사관, 트레이닝센터, 숙소,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 군수는 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마한촌 건립사업과 관련 전라남도도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계획 중 마한 역사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영암 마한문화공원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올해 4월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마한역사문화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영암왕인문화축제와 관련된 관광자원과 연계, 매력적인 관광명소이자 씨름 수련의 메카를 조성하는 체계적인 씨름 교육의 장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씨름경기장, 역사관, 트레이닝센터, 숙소,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시민 여러분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군산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군산시, 주민 보험 가입

또 군산시 외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물론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에 대한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50만원 한도, 벌금

2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험기간은 11월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다.

이선철 군산시 건설과장은 "자전거 이용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위험에 대한 걱

정을 덜어주고 자전거 사고발생 시 시민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모든 시민에게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현재까지 1322명이 13억7000여만원(1인당 평균 105만 6732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군산=박금식 기자 nogusu@



정읍시,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주민안전 최선

정읍시는 주민 안전 확보와 신속·정확한 재난 정보 제공을 위해 재해문자 전광판(사진)을 추가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1억4000만원을 투입해 공평동 정일여자중학교 인근에 재해문자 전광판을 설치했다.

시는 정읍 천변 정주교, 내장산 워터파크 인근에 단면형 재해문자 전광판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신규 설치된 전광판은 시민의 가시성 확보를 위해 양면형으로 조성됐다.

이 전광판이 설치된 정일여자중 인근 도로 는 차량 통행량이 많아 시민에게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재난 유형별 시민행동요령 등을 문자와 동영상으로 표출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각종 재난 시에 신속한 재난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각 마을회관에 시 안전총괄과와 연결된 앰프를 설치해 각종 재난 상황 시 이를 통해 재난정보와 기상특보를 방송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나주시, 카카오톡 메신저로 '시정소식' 전한다

나주시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 민선 7기 분야별 시정 소식을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시민 알권리 향상과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SNS매체 중 가장 대중적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시책을 홍보하고 있다.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는 정보 소외계층 해소를 위해 시작됐다.

나주시가 지난 3월부터 자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나주관광 블로그 등을 운

영 중지지만 매체별 특성과 사용 연령대가 달라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일부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운영을 기념해 21일까지 '친구추가 이벤트'도 벌인다. 나주시정을 친구로 추가한 후 1대1 채팅창에 ID·연락처·거주지·응원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나주시는 25일 추첨을 통해 참여자 50명에게 모바일 커피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익산시, 여성·학생 '안전 귀갓길' 조성 주력

익산시가 안전한 귀갓길 조성 등으로 여성과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주력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리여자고등학교, 남창초등학교, 이리서초등학교 주변을 생활 안전 환경디자인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안전한 귀갓길 조성에 나선다.

이 사업을 위해 이들 학교에 대한 설계 용역과 경관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사업 대상지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됐으나 환경조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범죄예방을 위한 생활 안전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다.

시는 이곳에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학교 주변 통학로, 골목, 담장에 CCTV 등의 방범시설물 설치한다.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차도 분리 도색, 야간 경관조명 설치도 할 예정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강진 다산베아채리조트 개장...본격 영업

객실 52개...골프장·야외수영장 등 갖춰

강진 다산베아채리조트(사진)가 지난 2일 개장식을 열고 본격 영업에 들어갔다.

총 52개의 객실을 보유한 리조트는 전 객실에서 바다와 산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5층에 위치한 스위트룸에서는 아름다운 강진만 가우도와 바다를 내려다보며 즐길 수 있는 욕조와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다.

이국적인 야외수영장과 어린이피터링 등 부대시설을 갖춰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리조트 인근의 다산초당, 백련사, 영랑생가, 가우도 등 여러 관광지와 함께 쉬어갈 수 있는 힐링 여행의 길이 열렸다.

내부 연회장과 야외가든피터링에서는 각종 세미나와 행사 및 고품격 연회를 진행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다산베아채리조트는 총 45만평의 대지에 27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으로 다산, 베아채, 장보고로 구성된 3개 코스 중 씨사



드가 14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장보고코스 6번홀(파3)은 대형 호수 가운데 그린에 자리한 아일랜드 홀인데다 그린 너머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1위인 가우도가 눈앞에 보인다.

다산코스 7·8번홀은 일명 쌍둥이홀로 조선500년의 역사와 함께한 후박나무가 반갑게 맞이해준다.

이애자다산베아채골프앤리조트(다산베아채컨트리클럽) 대표이사는 "남해안 시대를 여는 강진에 리조트를 개장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지 및 골프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상가 1층 4거리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매매 - 7억원(대출 2억5천만 포함)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
문의. 010-6834-7400

